



광주지역 낮 최고기온이 34.7도를 기록한 8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시민 공원 앞 도로가 뜨겁게 달궈지면서 지열이 아지랑이로 이글거리고 있다. 이날 전남 동부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이틀째 이어졌고, 광양의 최고기온은 울머래 가장 높은 37.1도까지 치솟았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살·인·폭·염

최고 37.1도 탈진·익사 잇따라... 당분간 째름 계속

7월 들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폭염으로 인해 탈진하는 일사병 사고가 잇따르고, 국토대장정 행진을 하던 여대생이 숨졌다. 또 수영을 하다 익사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와 낮 최고기온이 34.7도까지 치솟는 등 광주·전남 모든 지역이 울머래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다. 특히 전남 동부권에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이 37.1도를 기록했다.

◇일사병·익사 잇따라=8일 오후 1시 40분께 순천시 매곡동 시립도서관 뒷길에서 집에 가던 이모(여·55)씨가 탈진, 119구조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께에는 순천시 가곡동 T식당 앞에서 김모(여·60)씨가 갑자기 쓰러져 119구조대가 출동하는 등 탈진 신고가 잇따랐다. 순천지역의 이날 낮 최고기온은 36.5도를 기록했다.

불볕 더위 속에 국토대장정 행진을 하던 여대생이 쓰러져 숨지기도 했다. 지난 7일 오후 3시께 경북 경주시 산내면 신원리 도로에서 국토대장정에 참가했던 대학생 서모(여·22)씨가 행진을 하다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 시간 만에 숨졌다. 이날 경주지역 낮 최고기온은 36.4도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앞서 이날 새벽 0시 50분께 목포시

서산동 수협 위관장 앞바다에서 수영을 하던 김모(39·목포시 서산동)씨가 숨지고, 송모(36·목포시 용해동)씨는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숨진 김씨는 직장동료인 송씨와 술을 마신 뒤 더위를 피해 수영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활동 자제=이날 ▲순천 36.5도 ▲화순 36.3도 ▲구례 36.2도 등 광주·전남 지역 대부분이 낮 최고기온 35도를 웃돌면서 전남 동부 일부 지역에는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각각 내려졌다. 이처럼 낮 기온이 크게 치솟을 경우에는 지나친 야외활동을 피해야 일사병을 예방할 수 있다.

양승진 내과 전문의는 "일사병 등은 뜨거운 열을 받아 신체의 리듬이

깨져서 발생하는 것만큼 현기증이 일어나면 재빨리 서늘한 곳으로 가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며, 평상시 수박이나 바나나 등 과일을 많이 먹어두는 게 좋다"며 "덥다고 에어컨을 오래 켜두는 것보다 2시간 방방 후 환기를 하는 게 좋지만 무엇보다 자연이 주는 바람을 쐬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한편,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권에 놓이면서 고온 다습한 기온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여 폭염주의보가 9일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이번 무더위는 비가 오는 금요일(11일)을 기점으로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광림기자 kps@kwangju.co.kr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8일 시간당 최대전력이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3시 평균 최대전력은 6천 225만kW에 달했다.

이는 강추위가 몰아닥쳤던 지난 1월 17일(6천94만kW)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사상 최고치인 6천 228만kW에도 바짝 다가섰다. 공급능력은 6천 732만kW로 공급 예비율은 불

과 7.6%로 집계됐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불볕더위가 11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9일부터는 사상 최고치인 6천 228만kW를 넘어서는 6천 300만kW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력거래소 배주천 급전운영팀

장은 "올해 무더위 시기가 빨라져 예비율이 애초 예상보다 낮지만 전력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 우리나라 전체로 냉방전력만 1시간에 20억 원 정도로, 전기를 아껴쓰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종희기자 choice@

광주·전남도 이날 오후 5시 현재 전력사용량이 379만6천kW로, 올 최대치인 2월 13일(414만9천kW) 수준 돌파를 눈앞에 뒀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12일 전력수급 대책회의에서 올해 여름철에 정상기온(32.4도)일 경우 최대전력은 6천482만kW, 공급능력은 7천170만kW로 공급예비율이 10.6%에 달해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시간당 전력 사용 연중 최고

무고·위증 사범 67명 적발

광주지검 2개월 집중단속

악의적 무고 또는 위증한 신뢰저해 사범 6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지검장 황희철)은 지난 5~6월 2개월간 무고·위증 등 신뢰저해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최모(5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64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무고 사범은 50명(구속 3명), 위증사범은 17명이었다.

이 가운데 최씨는 1997년부터 지난 달 모두 23차례에 걸쳐 총 74명에 대해 상소적으로 고소하는가 하면 무고죄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소인이 불

리한 증언을 하자 "허위사실을 증언했다"며 이 피고소인을 또다시 허위 고소해 결국 구속됐다.

또 위증사범들은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피하거나 가족 등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 주기 위해 위증한 사례가 많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광주지검 박관용 형사1부장은 "무고나 위증은 사실관계 왜곡과 증거 조작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와 공판중심주의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면서 "또한 수사력 낭비, 재판 불신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침 (7551) 김장두



'광고중단 운동' 네티즌 20여명 出禁

조선·중앙·동아일보 상대 '광고중단 운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들 신문에 광고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네티즌 20여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8일 "특정 언론의 광고주 기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 네티즌 20여명을 최근 출국금지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금 대상자는 주로 광고주 기업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카페 등에 특정한 언론에 광고를 내는 기업 제품은 사

지 말자는 협박성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네티즌들이며, 이 중에는 광고 중단 운동을 주도한 다음 등 포털의 카페 운영진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이 평범한 일반인인 네티즌들에 대해 굳이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린 것은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 카페 운영자는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 밖에 없는데 일반 시민을 출국금지하는 것은 너무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검찰에 출석해 우리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출소 이틀만에 또 강도짓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이틀 만에 호프집에서 강도짓을 하다 붙잡혀 철장행.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최모(39)씨는 지난 7일 밤 11시 40분께 광주시 동구 서석동 호프집에서 주인 정모(여·49)씨를 흉기로 위협해 화장실에 감금한 뒤 카운터에서 현금 11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최씨는 "두만 가져갈 테니 화장실에서 나오지 말라"며 정씨를 가둬 놔지만 정씨가 화장실에 비치돼 있던 사다리를 통해 밖으로 탈출한 뒤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현장에서 검거.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사기죄로 목표교도소에서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지난 5일 출소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경찰은 최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

"자녀 다쳐 병원비 필요" "수년동안 금품 수수" 경찰관 해임은 당연

노인들 속여 돈 가로채 경찰관 해임은 당연

광주서부경찰은 8일 노인들에게 "당신 자녀가 다쳐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전모(66)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6월 12일 낮 12시 4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종합터미널에서 김모(여·73)씨에게 접근해 "당신 아들이 다쳐 입원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은행으로 데려가 100만원을 인출받아 달아나는 등 최근까지 세 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70~80대의 노인들에게 접근, 자녀 등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속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희기자 glee@kwangju.co.kr

해변의 낭만 전라남도에서 시작됩니다

낭만과 여유로움이 깃들어서 좋습니다. 전라남도의 맛과 멋이 깃들어서 좋습니다.

전라남도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풍부한 문화유산, 그리고 따뜻한人情을 자랑합니다.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경관을 즐기며, 맛있는 음식과 전통 문화를 체험해보세요.

전라남도, 아름다운 자연, 따뜻한人情, 맛있는 음식. 전라남도를 즐겨보세요!

전라남도